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보험감독위원회, 변액연금 도입을 위한 시범 실시 결정

- 5월 10일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는 베이징, 상해, 광저우, 선전, 샤먼 5개 도시를 우선대상으로 변액연금을 시범도입하기로 결정함.
 - 이를 위해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는 변액연금 시범도입과 변액보험 판매사 자격, 판매채널 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마련함.
- 변액연금 취급자격 요건을 변액보험의 판매경험 3년 이상, 최근 2분기의 지급여력비율 150% 이상, 최근 1년간 중대한 행정처벌이 없는 보험회사로 제한함.
 - 또한 변액연금에 대한 보험회사의 운영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에 대한 변액연금 판매총액을 규제하며, 각 보험회사는 하나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임.
 - 변액연금 판매는 보험설계사, 임직원, 방카슈랑스 모두 가능한 반면, 은행 예금 창구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며, 보험기간은 7년 이상으로 규정됨.
- 고령화의 진전과 인플레이션의 지속으로 변액연금에 대한 시장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, 변액연금에 대한 사업리스크로 중소형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와는 달리 대형 보험사회들은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음.
 - 변액연금판매의 시범시행에 많은 보험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, 변액연금에 대한 사업리스크로 보험감독위원회에 변액연금 취급에 대한 사전 인가를 신청한 보험회사는 없는 실정임.
 - 노후소득 보장과 인플레이션 대비를 위한 변액연금이 중국에서도 높은 시장잠재력이 보이지만, 변액연금의 최저보증 리스크로 인해 보험회사들의 시장진입은 다소 소극적임.
 - 4월에 발표한 은행 외 타 금융회사의 보험상품 판매자격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 되면 변액연금상품이 증권회사의 주요한 보험상품이 될 것으로 판단됨.
 - 현재 중국은 은행을 대상으로만 방카슈랑스가 시행되고 있으나, 동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타 금융회사의 보험판매 자격도 검토 중임. <중국증권보 5/11>